봉명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게 1회 정기총회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월 27일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 했습니다.이날총회가개최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조합원을 비롯해 행정과 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조합의 첫 정기총회 자리를 뜻깊게 빛냈습니다.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고, 도시재생 지역을 스스로 유지 · 관리하며, 공익적 가치 기반의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민 조직으로, 지난 2024년 4월 천안시 제1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공식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와 운영 현황을 조합원들 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2025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 방향을 모색하며, 조합의 자립적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양승성 사무국장 취임 인터뷰

③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무엇인가요?

▲ 사무국장이 된지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주는 무게와 책임은 크지만, 봉명동에서 태어나 60여년 살아온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이 역할을 해내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봉명동이 더 발전하고, 살고싶은 따뜻한 동네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봉명상생상기를 거점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마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건강한 재료의 호두과자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며, 조합원 교육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숨쉬는 부엌 공간을 활용한 반찬 · 샐러드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소규모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 시범 운영했던 전통주 교육은 올해 주민 대상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경제의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봉명동에서 오랜시간 살아오며 지역 자생단체와도 꾸준히 협력 해왔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단체의 인적 자원과 조합의 물적자원을 잘 결합해

올해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가요?

이 기존의 주민 조직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인가요?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봉명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팅지구 주민참여형 로컬 상품 브랜드 설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주민참여형 로컬상품 브랜드 설계 워크숍을 시작으로 로컬상품 브랜드 설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봉명지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은 주민 워크숍을 통한 상품 콘셉트 개발을 시작으로, 브랜드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총 4회의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바탕으로, 봉명지구의 정체성을 담은 로컬 상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 운영을 통해 시장 반응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로컬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봉명지구만의 특별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

.



도시재생 X 대학교 공유협력사업

참석자 천안시 및 6개 대학 관계자 총 52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일시 25. 2. 5. 15:30

장소 오엔시티호텔





천안시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일시 25. 2. 27. 18:00 장소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참석자 조합원 및 관계자 총 40여명



미래세대 도시재생 체험학교 운영 도시재생현장학교 in 오룡지구 운영

일시 25. 4. 26. ~ 7. 19. 10:00(총 7회) 일시 25. 4. 19. ~ 4. 26. 10:00(총 2회) 장소 7BASE 및 친환경한뼘공원 참석자 천안시민 16명



일시 25. 5. 21. ~ 6. 11. 14:00(총 4회)





일시 25. 5. 24. 10:00 장소 천안시통합돌봄센터 및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구역 일대 참석자 어린이 및 학부모총 21명



오룡지구 주민희망프로그램 운영

일시 25. 6. 9. ~ 7. 7. 10:00(총 5회) 장소 7BASE 참석자 천안로컬푸드소비자협동조합,이안아트팜, 참석자 천안시민 21명



일시 25. 6. 18. ~ 7. 16. 14:00(총 3회)

도시재생현장학교 in 남산지구 운영

장소 남산문화창작소

참석자 천안시민 12명

천안시 도시재생 로컬푸드 상생협약 체결

관계자 및 농장운영자 총 20명

제12차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토론회

일시 25. 6. 27. 10:00 장소 천안시 타운홀 참석자 천안시 및 도시재생관계자 총 19명





장소 천안지역사전시관

봉명지구 '로컬상품 브랜드

장소 천안시통합돌봄센터

참석자 봉명지구 주민 15명

일시 25. 6. 13. 13:30

장소 7BASE

종합 설계 워크숍' 운영

참석자 천안시 및 대학생 총 12명

2025 천안시 도시재생현장학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남산지구와 오룡지구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로 도시재생현장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도시재생현장학교 in 오룡지구 : 업사이클링으로 만난 도시재생

일시: 2025. 4. 19., 4. 26.

장소: 오룡지구 7BASE 및 친환경한뼘공원

내용 : 친환경한뼘공원 내 시민 참여 펜스 조성 및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화분 제작

도시재생현장학교 in 남산지구 :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도시재생

일시: 2025. 6. 18., 7. 2., 7. 16. 장소: 남산문화창작소 공유주방

내용 : 요리 교육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나눔냉장고'를 통해 취약계층 70가구 밀키트 기부

이번 도시재생현장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도시재생의 가치를 나누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명지구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2025 어린이 도시재생 탐험디

'2025 천안시 도시재생 탐험대 : 봉명지구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프로그램이 지난 5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보호자 총 21명이 팀을 이루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봉명지구 도시재생 사업구역 일대를 직접 탐방해 보고 나만의 도시재생 보물지도 만들기, 봉명지구 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지역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이 도시재생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참여 프로 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의 첫걸음

2025 미래세대 도시재생체험학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천안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된 남산지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DIT(Do It Together) 방식의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차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에 대한 학습부터 지역 탐방, 지역문제해결 워크숍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이후 실행안을 구체화한 뒤, 실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DIT 기반의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향 모색

제12차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토론회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6월 27일 천안시 타운홀 46층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센터의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및 한계점 등 현재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우 도시재생학회 학회장은 도시재생을 지속 가능한 도시운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센터의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례 정비, 전담조직 확대, 전문 인력 고용 안정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언했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국내 여러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통해 운영 모델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단일 센터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천안시 특성에 맞는 기초단위 센터의 역할 정립과 대학·청년자원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은 천안시의 도시재생 추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센터 운영 방향을 재정립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향후 재단화 및 천안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통합 운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오중 천안시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천안도시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오형석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며 센터 운영의 미래 지향점을 함께 그려볼 수 있었다"며, "각자의 시각은 달라도 더 큰 도시재생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이 제시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주민, 전문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u>사후관리 시작</u>

2024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했으며, 2025년에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남산지구에 이어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이후를 준비하는 자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공영주차장,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천안역세권 행복주택, 스마트 친수공원, 중심가로 가꾸기, 천안 스마트 아카이브 등 주요 거점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의 쾌적성과 이용도, 계획 대비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당초 계획에 부합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은 낮은 접근성과 이용률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준공 전인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복합캠퍼스타운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버 스마트폰 교육

오룡지구 도시재생 주민희망프로그램

오룡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주간 '실버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으며, 디지털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 내 고령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스마트폰 기본 이해 및 설정, 대중교통 앱 활용, 스마트 쇼핑,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등 기초적인 기능부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룡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안로컬푸드 ×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협약 체결

지난 6월 13일,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천안로컬푸드소비자협동 조합 및 이안아트팜과 로컬푸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세 기관은 지역 농가의 상품 및 콘텐츠 유치, 지역 홍보 및 상품 브랜딩 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도심에는 새로운 활력을, 농촌에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오는 7월 말, 신부7길 일원에서 '천안농부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이 도농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